

# 『諸病源候論』中 時氣病諸候에 對한 研究

梁鍾錫·申素英·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對『諸病源候論』中時氣病諸候之研究

梁鍾錫·申素英·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本篇論述時氣病. 時氣病含意是“非其時而有其氣, 是以一歲之中, 病無少長, 率相似者”. 似指某些季節性的流行病. 但其因還是受寒致病, 所以又稱“時行傷寒”. 而與冬時發作的傷寒病, 又有季節性和病情輕重的不同.

時氣的季節性, 是“從春分以後至秋分節前”, 三四月發病, 病熱小輕, 五六月發病, 病情則重, 七八月發病, 病熱亦小輕, 病情與當時的氣候影響, 關係密切. 正由于這個時節, 是由溫到暑的階段, 所以時氣病又與溫病, 暑病有相近之處; 但本病爲受寒致病, 在治法上就有其特殊性.

整篇內容, 從病因, 病機, 證候變化及其豫後, 與傷寒病篇略同, 但證候少一些, 簡一些, 病候諸證亦較少, 這可能是由于時氣病的整個病情和病程較輕較短, 或鑑于大部分病候已于傷寒病篇詳細論述, 故這里簡要一些.

關鍵詞: 諸病源候論, 時氣病, 時行傷寒, 溫病.

## I. 緒論

『諸病源候論』은 韓醫學 古典中의 하나로 隋代 以前의 醫學成果를 모두 結集하고 있다. 本書에 서는 疾病의 病源과 證候를 集中의으로 論述하고 있어 古代 病因病理學의 專門書籍이라고 할 수 있다. 本書는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 등

\* 교신저자 : 이남구, 전남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ngoo3525@hanmail.net, Tel : 061-330-3525

의 서적이 나온 이후 한의학의 理論體系를 進一步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한의학의 病因病機學을 개발하는데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本書는 모두 五十卷, 六十七門, 一千七百三十九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內容中에는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五官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內容 中에는 전에 나왔던 醫書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 많은데 오랜 세월 쌓아 온 임상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諸病源候論中 時氣病은 그 季節에 걸맞지 않은 氣候變化에 의하여 發病되는 流行病을 말한다.

다만 그 原因이 대부분 寒邪에 感觸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時行傷寒이라고도 부르는데 겨울에 발작되는 傷寒病과는 輕重의 차이가 있다. 時氣病의 季節性은 春分以後에서 秋分前까지로 制限되는데 三四月에 發病하는 경우에는 病情이 비교적 가볍고 五六月에 발병하는 경우에는 病情이 비교적 무거우며 七八월에 發病하는 경우에는 病情이 다시 가벼워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로 보면 病情과 當時의 氣候에는 密接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時氣病은 溫病, 暑病과 類似하나 時氣病의 原因은 寒邪에 感觸되어 생기는 것으로 그 치료에 특수성이 있다. 本篇에 기술되어 있는 病因, 病機, 證候變化와 豫後는 傷寒病篇의 내용과 대략 같은데, 다만 傷寒病篇에 비해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다. 이는 時氣病의 證候는 대부분 이미 傷寒病篇에서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時氣病은 溫病과 더불어 現在 유행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과 類似性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대처방법 개발에 一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時氣病諸候는 時氣病에 대한 症候分析을 다방면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에는 時代的인 한계 때문에 일부 現實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섞여 있고 중복된 부분도 많으며, 原書가 출간된 이래 많은 세월이 거쳐 여러 차례 重刊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 錯誤로 탈락되거나 덧붙여진 부분도 있고 誤植, 誤字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을 참조하여 校勘을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가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정확한 理解를 돕고자 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 1.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考察·國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 가. 原文은 清代 周學海校刊本 『諸病源候論』을 底本으로 하였다.
- 나. 本문의 단락은 그 內容에 따라 時氣病諸候는 四十三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편의상 번호를 붙여 연구하였다.
-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고 가능한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가장 尙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 마. 國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으나, 文義가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意譯을 하였다.
- 바.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〇), 字句解에 (〇〇), 引用文獻에 『〇〇』으로 表示하였다.

## 2. 研究 資料

【표 1】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書名	略稱
1	元刊本 重刊巢氏諸病源候總論	元本
2	諸病源 明 汪濟川, 江璠 巢氏諸病源候論	汪本
3	候論校釋에서 清 胡益謙經義齋刊活字本 巢氏諸病源候論	胡本
4	引用한 文獻 湖北官書處重刊本 巢氏病源	鄂本
5	日本正保二年刊本 重刊巢氏諸病源候總論	正保本
6	黃帝內經素問	素問
7	脈經	脈經
8	注解傷寒論	傷寒論
9	外臺秘要	外臺
10	備急千金要方	千金方

## III. 本 論

時氣病諸候 凡四十三論

### 第一章. 時氣候

【原文】

時氣病者는 是春時應暖而反寒거나 夏時應熱

而反冷커나 秋時應涼而反熱커나 冬時應寒而反溫커나 非其時而有其氣하니 是以 一歲之中에 病無少長하고 率相似者니 此則時行之氣也라

從春分<sup>1)</sup>節後로 其中無暴大寒不氷雪而人有壯熱爲病者는 此則屬春時陽氣發於冬時伏寒하여 變爲溫病也라

從春分以後로 至秋分節前에 天有暴寒者는 皆爲時行寒疫也니 一名時行傷寒이라 此是節候有寒傷於人이요 非觸冒之過也라

若三月四月有暴寒하면 其時陽氣尙弱하여 爲寒所折하니 病熱猶小輕也요 五月六月에 陽氣已盛한대 爲寒所折하면 病熱則重也요 七月八月에 陽氣已衰한대 爲寒所折하면 病熱亦小微也라 其病이 與溫及暑病으로 相似나 但治有殊耳라

然得時病에 一日在皮毛하니 當摩膏火灸면 愈하고 不解者는 二日<sup>2)</sup>法鍼이요 服行解散<sup>3)</sup>汗出愈라 不解者는 三日<sup>4)</sup>復汗出하여 若大汗即愈 不解止어는 勿復發汗也라 四日<sup>5)</sup>에 服藜蘆丸<sup>(1)</sup>하여 微吐愈하고 若病固하여 藜蘆丸不吐者는 服赤豆瓜蒂散<sup>(2)</sup>하여 吐已解하니 視病者하여 尙未了者는 復一法鍼之當解라 不愈者는 六日<sup>6)</sup>에 熱已入胃하니 乃與鷄子湯<sup>6)</sup>下之愈라 百無不如意하니 但當諦視節度與病耳라

食不消<sup>(3)</sup>로 病亦如時行하여 俱發熱頭痛하니 食病은 當速下之요 時病은 當待六七日下之라

時病始得에 一日在皮하고 二日在膚하고 三日在肌하고 四日在胸하고 五日入胃하니 入胃에야 乃可下也라 熱在胃外而下之면 熱乘虛便入胃하니 然病要復下之라 不得下어는 胃中餘熱置此爲病은 二死一生이니 此輩不愈면 胃虛熱入胃爛이라 微者는 赤斑出하니 五死一生이요 劇者는 黑斑出하니 十死一生이라 病人有強弱相倍<sup>(4)</sup>也라

若得病無熱하고 但狂言煩躁不安하고 精神語言與人不相相當者는 勿以火迫이니 但以猪苓散一方寸匕已上飲之호대 以一升若升半水로 可至二升이

면 益佳니 當以新汲井水로 強令飲之하고 以指刺喉中吐之면 隨手愈라 不時吐者는 此病皆多不瘥니 勿以餘藥治也라 不相相當이면 必危라 若此病不時以猪苓散吐解之者는 其殆速死요 亦可先以法鍼之면 尤佳라 以病者過日어는 不以時得下之면 熱不得泄하여 亦胃爛矣라

養生方導引法云 清旦初起하여 以左右手交互從頭上挽兩耳舉하고 又引鬢髮이면 卽流通하여 令頭不白하니 耳不聾이요 又摩手掌令熱하여 以摩面從上下二七止니 去肝氣<sup>7)</sup>하여 令面有光이라 又摩手令熱하여 令熱從體上下하니 名曰乾浴이라 令人勝風寒時氣하여 寒熱頭痛 百病皆愈라

#### 【校勘】

- 1) 春分: 『傷寒論·傷寒例』에는 '立春'으로 되어 있다.
- 2) 二日: 『千金方』卷九第一과 『外臺』卷三에는 '二日在膚'로 되어 있다.
- 3) 行解散: 『千金方』卷九第一과 『外臺』卷三에는 '解肌散'으로 되어 있다.
- 4) 三日: 『千金方』卷九第一에는 '三日在肌'로 되어 있다.
- 5) 五日: 『千金方』卷九第一과 『外臺』卷三에는 '五日在胸'으로 되어 있다.
- 6) 鷄子湯: 『外臺』卷三에는 '利湯'으로 되어 있다.
- 7) 肝氣: 『外臺』卷三 「天行病發汗」에는 '汗氣'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藜蘆丸: 『千金方』卷九吐門에 기재되어 있는 처방으로 藜蘆, 附子로 이루어져 있다.
- (2) 赤豆瓜蒂散: 『千金方』卷九吐門에 기재되어 있는 처방으로 赤小豆, 瓜蒂를 粉末하여 香豉와 함께 끓여서 묽은 죽과 함께 복용한다. 一名 瓜蒂散이다.
- (3) 食不消: 宿食.

(4) 相倍: 相反, 倍는 背와 通.

**【考察】**

1. '春分'이 『傷寒論·傷寒例』에는 '立春'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문장에 春分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立春'의 誤植으로 보인다.
2. '二日'이 『千金方』卷九第一과 『外臺』卷三에는 '二日在膚'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타당하다.
3. '三日'이 『千金方』卷九第一에는 '三日在肌'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옳다.
4. '五日'이 『千金方』卷九第一과 『外臺』卷三에는 '五日在胸'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이것이 옳다.
5. '鷄子湯'이 『外臺』卷三에는 '利湯'으로 되어 있는데 鷄子는 下利作用이 없으므로 外臺의 기재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國譯】**

時氣病은 봄에는 따뜻해야 하는데 오히려 춥거나, 여름에는 더워야 하는데 오히려 서늘하거나, 가을에는 서늘해야 하는데 오히려 덥거나, 겨울에는 추워야 하는데 오히려 따뜻하여 계절에 걸맞지 않은 기후가 생겨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一年 中에 病이 兒른 아이 할 것 없이 대개 비슷하니 이것이 時行의 氣運이다.

立春以後로 갑작스런 추위가 없어 일음이 얼거나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高熱病이 생기는 것은 겨울에 寒邪에 感觸되어 이것이 체내에 潛伏되었다가 봄에 陽氣의 升發에 힘입어 溫病으로 變化되어 나타난 것이다.

春分以後부터 秋分에 이르기까지 갑작스런 寒冷氣候가 있어서 發病되는 것은 다 時行寒疫이니 一名 時行傷寒이다. 이는 寒冷한 기후가 사람을 상하게 한 것이요 사람이 寒冷을 과다하게 觸冒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三月 四月에 갑작스런 추위가 있으면 이때에는

陽氣가 여전히 弱하여 寒氣에 손상된 것으로 熱이 있더라도 오히려 비교적 가볍고, 五月 六月에는 陽氣가 盛한데 寒邪에 감촉되면 熱이 重하게 나타나고, 七月 八月에는 陽氣가 이미 衰해져 있는데 이때 寒邪에 감촉되면 熱이 또한 가볍다. 그 病이 溫病, 暑病과 비슷하나 治法은 확연히 다르다.

時氣病이 발생할 때 첫째 날에는 병이 皮毛에 있게 되므로 膏藥으로 문지르거나 땀을 쓰면 낫는다. 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이를때에는 병이 皮膚에 있게 되므로 鍼刺을 시행하거나 行解散을 복용시켜 땀을 내면 낫는다. 이때 낫지 않으면 사흘째에는 병이 肌肉에 있게 되므로 다시 發汗시켜 크게 땀이 나오게 되면 낫게 되는데 열이 풀리지 않으면 다시 發汗시켜서는 안 된다. 나흘째에는 병이 胸中에 있게 되므로 藜蘆丸을 복용시켜 약간 吐하게 하면 낫게 되고 만약 病이 완고하여 藜蘆丸을 써도 吐하지 않는 경우에는 赤豆瓜蒂散을 복용시켜 吐하게 하면 풀린다. 病者를 살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미가 보이면 거기에 맞는 鍼法을 사용하면 완전히 낫게 된다. 이때 낫지 않으면 六日째에는 熱이 胃로 들어가니 바로 鷄子湯으로 瀉下시키면 낫는다. 이렇게 하면 어떤 증세라도 낫지 않는 경우는 없으나 다만 治療方法과 病情을 잘살피어 이 두 가지가 서로 符合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래된 宿食病도 그 증세가 時行病과 흡사하여 모두 發熱과 頭痛이 있는데, 宿食은 급히 瀉下시켜야 하고 時氣病은 六七日 기다려 瀉下시켜야 한다.

時氣病은 첫째 날에는 병이 皮毛에 있고 둘째 날에는 皮膚에 있으며 셋째 날에는 肌肉에 있고 넷째 날에는 胸部에 있으며 다섯째 날에는 胃로 들어가는데 병이 胃로 들어간 다음에야 瀉下시킬 수 있다. 熱이 胃밖에 있는데 瀉下시키면 熱이 虛를 틈타 바로 胃로 들어가니 病을 치료하는 要點은 다시 瀉下시키는 것이다. 瀉下시켜서는 안 되는데 瀉下시켜 胃中에 熱이 쌓여 病이 된 경우는 두 사람 중에 하나밖에 살릴 수 없으니, 이러

한 사람이 낮지 않으면 胃의 虛熱때문에 胃가 헐게 된다. 병세가 輕한 사람은 赤斑이 나타나는데 다섯 사람 중 한사람 정도 살 수 있고, 병세가 심한 사람은 黑斑이 나타나는데 열 명 중 한 명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 이 모두는 환자건강의 強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만약 熱은 없고 다만 狂言, 煩躁不安하고 精神과 言語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못할 정도로 흐린 경우에는 火鍼이나 艾灸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는 다만 猪苓散을 한 술가락 以上 마시게 하는데 이때 물을 한 되나 한 되 반에서 두 되 정도 마시게 하면 더욱 좋다. 물은 우물에서 방금 길어온 신선한 물을 사용해서 억지로라도 마시게 한 뒤 손가락으로 목을 후벼 토하게 하면 낫게 된다. 이렇게 해서도 吐해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낮기 어려우니 다른 어떤 藥으로도 치료하기 어렵다. 精神과 言語가 錯亂되어 있으면 기필 위태로워진다. 만약 이 병을 제때 猪苓散을 써서 吐하게 하지 않으면 매우 위태로워져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또한 먼저 적절한 鍼法을 써서 催吐시켜도 괜찮다.

病이 胃로 들어갔는데 期日이 超過되도록 제때 瀉下시키지 않으면 熱이 發泄되지 않아 胃가 헐게 된다.

養生方導引法에 말하길 “아침 일찍 막 일어나 左右의 손을 교차하여 머리 위에서부터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또 수염과 모발을 쓰다듬으면 氣血이 잘 流通되어 머리카락이 희어지지 않고 귀가 멀지 않게 되며, 또 손을 열이 나도록 문질러 얼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14번 문지르는데, 이렇게 하면 얼굴에 광택이 나게 된다. 또 손을 열이 나도록 문질러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문지르는데 이를 乾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風寒과 時氣를 이길 수 있어 寒熱頭痛 등의 온갖 病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第二章. 時氣一日候

### 【原文】

時氣病一日에 太陽受病이라 太陽爲三陽之首나 主於頭項이라 故로 得病一日에 頭項腰脊痛이라

### 【國譯】

時氣病一日에는 太陽經에서 病을 받는다. 太陽은 三陽經의 우두머리로서 頭項을 주관하기 때문에 病이 생긴 첫날에 頭項과 腰脊에 통증이 있게 된다.

## 第三章. 時氣二日候

### 【原文】

時氣病二日에 陽明受病이라 陽明은 主於肌肉하고 其脈이 絡鼻入目이라 故로 病二日에 肉熱 鼻乾不得眠이라 夫諸陽在表하야 始受病이라 故로 可摩膏火灸發汗而愈라

### 【國譯】

時氣病二日에는 陽明經에서 病을 받는다. 陽明經은 肌肉을 주관하고 그 脈이 鼻로 連絡되고 目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病는지 二日에 肌肉에 熱이 나고 코가 말라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된다. 모든 陽經은 體表에 분포되어 있어서 病을 먼저 받기 때문에 膏藥을 塗布하거나 艾灸法을 써서 發汗시키면 낫는다.

## 第四章. 時氣三日候

### 【原文】

時氣病三日에 少陽受病이라 少陽脈이 循於脇하야 上於頸耳라 故로 得病三日에 胸脇熱<sup>1)</sup>而耳聾也라 三陽經絡이 始相傳病<sup>2)</sup>하야 未入於藏이라 故로 可汗而愈라

### 【校勘】

- 1) 熱: 『素問·熱論』에는 '痛'으로 되어 있다.
- 2) 始相傳病: 『素問·熱論』에는 '皆受其病'으로

되어 있다.

【國譯】

時氣病三日에는 少陽經에서 病을 받는다. 少陽脈이 脇部를 따라 목과 귀로 올라가기 때문에 病을 얻은 지 三日만에 胸脇에 熱이 나면서 귀가 멀게 된다. 三陽經絡이 처음에는 病을 서로 轉移시켜 臟으로 병이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痰을 내어 낫게 할 수 있다.

第五章. 時氣四日候

【原文】

時氣病四日에는 太陰受病이라 太陰爲三陰之首라 三日已後에 諸陽受病訖即傳之於陰하니 太陰之脈이 主於喉嗚이라 故로 得病四日에 腹滿而噎乾이요 其病이 在胸膈이라 故로 可吐而愈也라

【國譯】

時氣病四日에는 太陰經에서 病을 받는다. 太陰은 三陰經의 우두머리이다. 三日以後에 모든 陽經에서 다 받으면 陰經으로 병이 轉移되는데 太陰脈이 喉嗚을 주관하기 때문에 病을 얻은 지 四日만에 腹滿, 噎乾하게 되고 그 病이 胸膈에 있기 때문에 吐하게 함으로서 낫게 할 수 있다.

第六章. 時氣五日候

【原文】

時氣病五日에는 少陰受病이라 少陰脈이 貫腎絡肺 繫於舌이라 故로 得病五日에 口熱<sup>1)</sup>舌乾而引飲이요 其病在腹이라 故로 可下而愈라

【校勘】

1) 口熱: 『素問·熱論』에는 '口燥'로 되어 있다.

【國譯】

時氣病五日에는 少陰經에서 病을 받는다. 少陰

脈이 腎을 꿰뚫고 肺로 連絡되어 舌로 이어지기 때문에 得病五日에 口熱, 舌乾, 引飲하게 되고 그 病이 腹에 있기 때문에 瀉下시키면 낫는다.

第七章. 時氣六日候

【原文】

時氣病六日에는 厥陰受病이라 厥陰脈이 循陰器하야 絡於肝이라 故로 得病六日에 煩滿而陰縮이라 此爲三陰三陽俱受病이니 毒氣入於腸胃 故로 可下而愈라

【國譯】

時氣病六日에는 厥陰經에서 病을 받는다. 厥陰脈이 陰器를 循行하여 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得病六日에 煩滿, 陰縮하게 된다. 이것은 三陰三陽이 모두 병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되면 毒氣가 腸胃로 들어가기 때문에 瀉下시키면 낫는다.

第八章. 時氣七日候

【原文】

時氣病七日에는 法當小愈니 所以然者는 陰陽諸經傳病竟故也라 今病不除者는 欲爲再經病也니 再經病者는 謂經絡重受病也라

【國譯】

時氣病이 七日에는 마땅히 약간 나아야 하는데 그 까닭은 陰陽諸經으로 病이 다 轉移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病이 물러가지 않는 것은 再經病이 되고자 한 것이니, 再經病이라는 것은 經絡이 거듭 病을 받는 것을 말한다.

第九章. 時氣八九日已上候

【原文】

時氣病八九日已上不解者는 或是諸經絡重受於病이나 或已發汗吐下之後에 毒氣未盡하야 所

以病不能除거나 或一經受病에 未卽相傳하여 致使 停滯累日하여 病證不改者라 故로 皆當察其證候而 治之라

【國 譯】

時氣病이 八九日 以上 지나서도 풀리지 않는 것은 或 모든 經絡이 병을 거듭 받거나 或 發汗, 嘔吐, 瀉下를 한 다음에도 毒氣가 다 없어지지 않아 病이 제거되지 않거나, 或 一經에 病을 받은 다음 바로 병이 傳移되지 않고 여러 날 停滯하여 病證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證候를 잘 살펴 치료해야 한다.

### 第十章. 時氣取吐候

【原文】

夫得病四日에 毒在胸膈 故로 宜取吐라 有得病 二三日에 便心胸煩滿하면 此爲毒氣已入이라 或有 五六日已上 毒氣猶在上焦者는 其人有痰實故也 니 所以復宜取吐也라

【國 譯】

병이 생긴지 나흘쯤에는 毒이 胸膈에 있기 때문에 吐法을 써야 한다. 병이 생긴지 二三日만에 문득 心胸에 煩滿證이 있으면 이는 毒氣가 이미 들어간 것이다. 或 五六日以上 지나 毒氣가 上焦에 있는 것은 痰實證이 있는 사람이므로 다시 吐法을 써야 한다.

### 第十一章. 時氣煩候

【原文】

夫時氣病은 陰氣少하고 陽氣多라 故로 身熱而煩 이라 其毒氣在於心而煩者는 則今人悶而欲嘔하고 若其人胃內有燥糞而煩者는 則謬語 時繞臍痛 腹爲之滿하니 皆當察其證候也라

【國 譯】

時氣病은 陰氣는 적고 陽氣는 많기 때문에 身熱이 있으면서 煩悶하게 된다. 그 毒氣가 가슴에 있어 번민하는 사람은 가슴이 답답해져 嘔吐感이 생기고, 만약 胃內에 딱딱한 糞便이 생겨 煩悶하는 사람은 헛소리, 배꼽주위의 통증, 腹滿證이 생기니 모두 다 그 證候를 잘 살펴야 한다.

### 第十二章. 時氣狂言候

【原文】

夫病甚則棄衣而走하여 登高而歌하고 或至不食 數日하여 逾垣上屋하니 所上非其素時所能也어늘 病反能者는 皆陰陽爭而外并於陽이라 四肢者는 諸陽之本也니 邪<sup>1)</sup>盛則四肢實하고 實則能登高而歌 요 熱盛於身故로 棄衣而走요 陽盛故로 妄言罵詈 不避親戚<sup>2)</sup>이라 大熱遍身하면 狂言而妄見妄聞之라

【校 勘】

- 1) 邪: 『素問·陽明脈解篇』에는 '陽'으로 되어 있다.
- 2) 親戚: 『素問·陽明脈解篇』에는 '親疎'로 되어 있다.

【國 譯】

病이甚하면 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며 높은 곳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或은 며칠씩 밥을 먹지 않으며 담을 넘고 지붕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평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病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 陰陽이 다투어 밖의 陽으로 併合되기 때문이다. 四肢는 모든 陽의 根本이니, 邪氣가 盛하면 四肢가 實해지고, 사지가 實해지면 높은 곳에 올라 노래를 부를 수 있고, 熱이 盛하기 때문에 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것이며, 陽이 盛하기 때문에 親戚을 가리지 않고 욕을 해대는 것이다. 온 몸에 熱이 심하면 狂言, 妄見, 妄聞의 증세가 있게 된다.

### 第十三章. 時氣嘔候

【原文】

胃家有熱<sup>한대</sup> 穀氣入胃<sup>하야</sup> 與熱相并<sup>하야</sup> 氣逆則嘔<sup>라</sup> 或吐下後에 飲水多<sup>하야</sup> 胃虛冷<sup>하면</sup> 亦爲嘔也<sup>라</sup>

【國譯】

時氣病에 의해 陽明經에 熱이 있는데 穀氣가 胃로 들어가 熱과 併合하여 氣가 逆上되면 嘔吐하게 된다. 或은 嘔吐나 泄瀉를 한 다음 물을 많이 마셔 胃가 虛冷해지면 또한 嘔吐證狀이 있게 되기도 한다.

### 第十四章. 時氣乾嘔候

【原文】

熱氣在於脾胃<sup>거나</sup> 或發汗解後 或大下之後에 胃內不和<sup>하야</sup> 尙有蓄熱<sup>하면</sup> 熱氣上熏<sup>이라</sup> 故<sup>로</sup> 心煩而嘔也<sup>라</sup>

【國譯】

熱氣가 脾胃에 있거나, 或은 發汗을 시켜 열을 풀거나 或은 크게 瀉下시킨 다음에 胃氣가 不和하여 胃에 熱이 쌓이게 되면 熱氣가 上焦를 熏蒸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속이 메스거리게 된다.

### 第十五章. 時氣噦候

【原文】

伏熱在胃<sup>하면</sup> 令人胸滿<sup>하니</sup> 則氣逆<sup>하고</sup> 氣逆則噦<sup>이라</sup> 若大下後에 胃氣虛冷<sup>하여도</sup> 亦令致噦也<sup>라</sup>

【國譯】

胃에 熱이 潛伏해 있으면 胸滿證狀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氣逆하게 되고 氣逆하면 딸꾹질이 있게 된다. 크게 瀉下시킨 다음에 胃氣가

虛冷해져도 또한 딸꾹질이 생긴다.

### 第十六章. 時氣嗽候

【原文】

熱邪客於肺<sup>하야</sup> 上焦有熱<sup>하면</sup> 其人必飲水<sup>하니</sup> 水停心下則上乘於肺<sup>라</sup> 故<sup>로</sup> 上氣而嗽也<sup>라</sup>

【國譯】

熱邪가 肺로 침범하여 上焦에 熱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때 水氣가 心下에 정체되면 위로 肺를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上氣가 되면서 기침을 하게 된다.

### 第十七章. 時氣渴候

【原文】

熱氣入於腎臟<sup>할새</sup> 腎惡燥<sup>어는</sup> 熱氣盛則腎燥<sup>하니</sup> 腎燥故<sup>로</sup> 渴而引飲也<sup>라</sup>

【國譯】

熱氣가 腎臟으로 들어갈 때에 腎은 燥를 싫어하는데 熱氣가 盛하면 腎이 燥해지기 때문에 渴症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된다.

### 第十八章. 時氣衄血候

【原文】

時氣衄血者<sup>는</sup> 五臟熱結所爲<sup>라</sup> 心主於血<sup>하니</sup> 邪熱이 中於手少陰經<sup>하고</sup> 客於足陽明之絡<sup>이라</sup> 故<sup>로</sup> 衄血也<sup>라</sup> 衄者<sup>는</sup> 血從鼻出也<sup>라</sup>

【國譯】

時氣病에 衄血이 있는 것은 五臟에 熱이 鬱結되어 생긴다. 心은 血을 주관하는데 邪熱이 手少陰經과 足陽明絡으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衄血이 있게 된다. 衄이라는 것은 코피를 말한다.

### 第十九章. 時氣吐血候

【原文】

諸陽受病<sup>한대</sup> 不發其汗<sup>하면</sup> 熱毒入深<sup>하야</sup> 結在五臟<sup>하야</sup> 內有瘀血積<sup>이라</sup> 故<sup>로</sup> 令吐血也<sup>라</sup>

【國譯】

모든 陽經에 病이 생겼는데 發汗시키지 않으면 熱毒이 깊어 들어가 五臟에 멍쳐 瘀血이 쌓이기 때문에 吐血하게 되는 것이다.

### 第二十章. 時氣口瘡候

【原文】

發汗下後<sup>에</sup> 表裏俱虛而毒氣未盡<sup>하면</sup> 熏於上焦<sup>라</sup> 故<sup>로</sup> 喉口生瘡也<sup>라</sup>

【國譯】

發汗과 瀉下後에 表裏가 모두 虛한 상태에서 毒氣가 다 없어지지 않으면 上焦로 침범하기 때문에 입안이 험게 된다.

### 第二十一章. 時氣咽喉痛候

【原文】

陰陽隔絕<sup>하야</sup> 邪客於足少陰之絡<sup>하면</sup> 毒氣上熏<sup>하야</sup> 攻於咽喉<sup>라</sup> 故<sup>로</sup> 痛或生瘡也<sup>라</sup>

【國譯】

陰陽의 氣가 균형을 잃어 邪氣가 足少陰絡으로 침범하면 毒氣가 위로 훈증되어 咽喉를 공격하기 때문에 痛症이나 瘡腫이 생기게 된다.

### 第二十二章. 時氣發斑候

【原文】

夫熱病在表<sup>하야</sup> 已發汗未解<sup>거나</sup> 或吐下後<sup>에</sup> 熱毒氣不散<sup>하야</sup> 煩躁謬言語<sup>1)</sup> 則<sup>하면</sup> 此爲表虛裏實<sup>이라</sup> 熱氣躁<sup>2)</sup> 於外<sup>하니</sup> 故<sup>로</sup> 身體發斑如錦文<sup>이라</sup> 凡發斑

에 不可用發表藥<sup>이니</sup> 令瘡開泄<sup>하야</sup> 更增斑爛<sup>하니</sup> 表虛故也<sup>라</sup>

【校勘】

- 1) 謬言語: 元本에는 '謬語'로 되어 있다.
- 2) 躁: 『外臺』卷三「天行發斑方」에는 '燥'로 되어 있다.

【考察】

1. '躁'가 『外臺』卷三「天行發斑方」에는 '燥'로 되어 있는데 文脈上 이것이 맞다.
2. 本候에서 제시한 '凡發斑不可用發表藥'은 發斑治療의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斑疹은 대개 血分熱盛에 기인하므로 이를 辛溫한 약으로 발산시키면 陰血이 枯燥되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辛涼한 약으로 解毒시켜야 한다.

【國譯】

體表의 熱病이 發汗으로 풀리지 않거나 혹은 吐下後에 熱氣가 흩어지지 않아 煩躁, 謬語症이 있으면 이는 表虛裏實의證이다. 熱氣가 體表를 枯燥시키므로 身體가 비단 무늬처럼 斑疹이 생기게 된다. 發斑에는 發表藥을 써서는 아니 되니, 發汗시키면 瘡口로 氣를 開泄시켜 斑疹이 심해지는데 이는 表가 虛해지기 때문이다.

### 第二十三章. 時氣毒攻眼候

【原文】

肝은 開竅於目<sup>하니</sup> 肝氣虛<sup>하야</sup> 熱毒이 乘虛上冲<sup>於目</sup> 故<sup>로</sup> 赤痛<sup>거나</sup> 或生翳赤白膜息肉及瘡也<sup>라</sup>

【國譯】

肝은 눈으로 開竅하는데, 肝氣가 虛하여 熱毒이 虛를 틈타 눈으로 上冲하기 때문에 눈이 充血되면서 아프거나 혹은 붉고 흰 翳膜, 息肉, 瘡이 생기게 된다.

### 第二十四章. 時氣毒攻手足候

【原文】

熱毒氣從臟腑出<sup>하야</sup> 攻於手足<sup>하니</sup> 手足則焮<sup>(1)</sup>  
熱赤腫疼痛也<sup>라</sup> 人五臟六腑井榮俞<sup>는</sup> 皆出於手  
足指<sup>라</sup> 故<sup>로</sup> 此毒從內而出也<sup>라</sup>

【字句解】

(1) 焮: 구을 흔.

【國譯】

熱의 毒氣가 臟腑로부터 나와 手足을 공격하면  
手足에 바로 열이 나면서 붉게 붓고 아파게 된  
다. 五臟六腑의 井榮俞穴이 모두 手足指에서 나  
오기 때문에 이 毒氣는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 第二十五章. 時氣炮瘡候

【原文】

夫表虛裏實<sup>하야</sup> 熱毒內盛<sup>(1)</sup> 則多發炮瘡<sup>이라</sup> 重  
者<sup>는</sup> 周布遍身<sup>하야</sup> 其狀如火瘡<sup>이라</sup> 若根赤頭白者<sup>는</sup>  
卽毒輕<sup>이요</sup> 若色紫黑則毒重<sup>이라</sup> 其瘡形<sup>이</sup> 如登豆<sup>하</sup>  
나 亦名登豆瘡<sup>(2)</sup> <sup>이라</sup>

【校勘】

- 1) 熱毒內盛: 『外臺』卷三「天行發瘡豌豆炮瘡方」에는 '熱毒內盛 攻於臟腑 餘氣流於肌肉 遂於皮膚毛孔之中'으로 되어 있다.
- 2) 登豆瘡: 『外臺』卷三「天行發瘡豌豆炮瘡方」에는 '登豆瘡 脈洪數者 是其候也'로 되어 있다.

【國譯】

表虛裏實해서 熱毒이 속에 盛하면 炮瘡이 발생  
하기 쉽다. 병이 重한 사람은 온몸에 퍼져 火瘡  
과 같다. 만약 瘡根이 붉고 瘡頭가 희면 경증이  
고 色이 紫黑이면 중증이다. 瘡의 형상이 登豆와  
같으므로 登豆瘡이라고도 한다.

### 第二十六章. 時氣瘰癧候

【原文】

夫病新瘥<sup>에</sup> 血氣未復<sup>하야</sup> 皮膚尙虛疎<sup>어늘</sup> 而觸  
冒風日則遍體起細瘡<sup>하야</sup> 瘰癧如癬疥狀<sup>하니</sup> 名爲  
逸風<sup>이라</sup>

【國譯】

病이 막 나으려 할 때에는 血氣가 아직 회복되  
지 않아 皮膚가 여전히 허약한데 이때 바람을 맞  
으면 온 몸에 적은 瘰癧이 발생하여 움처럼 가려  
움증이 생기니, 逸風이라고 한다.

### 第二十七章. 時氣齩候

【原文】

毒氣結在腹內<sup>하야</sup> 穀氣衰<sup>하고</sup> 毒氣盛<sup>하야</sup> 三蟲  
動作<sup>하면</sup> 食人五臟<sup>하야</sup> 多令泄利<sup>라야</sup> 下部瘡瘍<sup>이라</sup>  
若唇內生瘡<sup>하고</sup> 但欲寐者<sup>는</sup> 此蟲食下部也<sup>요</sup> 重者<sup>는</sup>  
肛爛見五臟也<sup>라</sup>

【國譯】

毒氣가 腹內에 結聚되어 穀氣가 衰弱해지고 毒  
氣가 盛하여 三蟲이 發動하면 五臟을 蠶食하여  
泄利證이 多發하므로 下部에 瘡瘍이 생기게 된  
다. 만약 입술이 헐고 잠만 자려고 하는 경우는  
蟲이 下部를 蠶食한 것이고, 병이 重한 경우에는  
항문이 헐게 된다.

### 第二十八章. 時氣熱利候

【原文】

此<sup>는</sup> 由熱氣在於腸胃<sup>니</sup> 挾毒則下黃赤汁也<sup>라</sup>

【國譯】

이는 熱氣가 腸胃를 침범하여 생기는 것인데, 이  
때 만일 毒을 끼게 되면 黃赤汁의 泄利가 생긴다.

### 第二十九章. 時氣膿血利候

【原文】

此는 由熱傷於腸胃라 故로 下膿血如魚腦나 或如爛肉汁라하고 壯熱而腹疢痛<sup>(1)</sup> 하니 此는 濕毒所爲也라

【字句解】

(1) 疢痛: 뱃속이 켜기면서 아픈 증세.

【國譯】

이는 熱이 腸胃를 損傷시켜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魚腦나 고기 썩은 물같은 膿血이 나오고 壯熱, 腹疢痛이 생기니, 이는 濕毒에 의해 생긴 것이다.

### 第三十章. 時氣蠶利候

【原文】

夫熱蓄在藏라면 多令人下利라 若毒氣盛則變膿血라야 因而成蠶라니 蠶者는 蟲食人五藏及下部也라 若食下部則令穀道生瘡而下利라니 名爲蠶利요 若但生瘡而不利者爲蠶也라

【國譯】

熱이 藏에 쌓이면 下利證이 잘 생긴다. 毒氣가 盛하면 膿血로 변하여 蠶이 형성되니 蠶이라는 것은 蟲이 五藏과 下部를 蠶食하는 것이다. 下部를 잠식하면 穀道에 瘡가 생겨 下利하니 蠶利라고 하고, 단지 腫瘡만 생기고 下利는 없는 것은 蠶이다.

### 第三十一章. 時氣大便不通候

【原文】

此는 由脾胃有熱라니 發汗太過則津液竭라하고 津液竭則胃乾라야 結熱在內라야 大便不通也라

【國譯】

이는 脾胃에 熱이 있어서 생기는 것인데, 發汗이 太過되면 津液이 竭盡되고 津液이 竭盡되면 胃液이 말라 熱이 속으로 뭉치기 때문에 大便이 不通하게 되는 것이다.

### 第三十二章. 時氣小便不通候

【原文】

此는 由汗後에 津液虛少라하고 其人小腸有伏熱이라 故로 小便不通也라

【國譯】

이는 發汗後에 津液이 부족해지고 小腸에 熱이 潛伏하여 小便이 不通된 것이다.

### 第三十三章. 時氣陰陽毒候

【原文】

此는 謂陰陽二氣偏虛則受於毒이라 若病身重 腰脊痛 煩悶 面赤斑出 咽喉痛라하고 或下利狂走하면 此爲陽毒이요 若身重背強 短氣嘔逆 脣青面黑 四肢厥冷라면 爲陰毒이라 或得病數日에 變成毒者라하며 或初得病에 便有毒者라니 皆宜依證急治요 失候則殺人이라

【國譯】

이는 陰陽二氣가 偏虛하면 바로 毒에 感受된다는 것을 말한다. 病이 身重, 腰脊痛, 煩悶, 面赤斑出, 咽喉痛하고 或 下利狂走하면 이는 陽毒이고, 身重背強, 短氣嘔逆, 脣青面黑, 四肢厥冷하면 陰毒이다 或 病을 얻은지 數日만에 毒으로 變成되는 경우도 있고, 或 病이 발생하자마자 毒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다 證에 의거해서 急히 치료해야지 만일 證候를 잘못 진단하면 사람을 죽게 만든다.

### 第三十四章. 時氣變成黃候

【原文】

夫時氣病에 濕毒氣盛하야 蓄於脾胃하야 脾胃有熱則新穀鬱蒸하야 不能消化하야 大小便結澁이라故로 令身面變黃하야 或如橘柚커나 或如桃枝色이라

【國譯】

時氣病에 濕毒의 기운이 盛하여 이것이 脾胃에 쌓여 熱이 심해지면 飲食이 소화되지 않아 大小便이 結澁되기 때문에 몸과 얼굴이 노랗게 변하여 귤이나 유자 或은 복숭아가지 색깔처럼 된다. 第三十五章. 時氣變成瘧候

【原文】

病後邪氣未散하야 陰陽尙虛한데 因爲勞事하야 致二氣交爭호대 陰勝則發寒하고 陽勝則發熱이라故로 令寒熱往來하야 有時休作而成瘧이라

【國譯】

病後에 邪氣가 아직 흩어지지 않아 陰陽이 虛한데 과로하여 二氣가 交爭함으로서 이 병이 되는데, 陰이 우세하면 惡寒이 발생하고 陽이 우세하면 發熱이 생기기 때문에 寒熱이 往來하여 때때로 증세가 발작했다가 그쳤다 하는 瘧疾이 형성된다.

第三十六章. 時氣敗候

【原文】

此는 謂病後餘毒未盡하야 形證變轉하면 久而不瘥하야 陰陽無復綱紀하니 名爲敗病이라

【國譯】

이는 病後에 餘毒이 다 없어지지 않아 形證이 變轉되던 오래 동안 병이 낫지 않아 陰陽에 일정한 법도가 없이 錯亂되니 敗病이라고 한다.

第三十七章. 時氣勞復候

【原文】

夫病新瘥者는 血氣尙虛하고 津液未復하니 因即勞動하면 更成病焉이라 若言語思慮則勞於神하고 梳頭澡洗則勞於力하고 未堪勞而強勞則生熱하야 熱氣還經絡하야 復爲病者하니 名曰勞復이라

【國譯】

病에서 막 회복한 사람은 血氣가 여전히 虛弱하고 津液이 미처 다 回復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때 바로 勞動을 심하게 하면 다시 病이 생기게 된다. 七情을 과도히 쓰면 精神이 피로해지고,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면 힘이 빠지며,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도 억지로 노동을 하면 熱이 생겨 이 열이 經絡으로 침범하여 다시 병을 일으키므로 勞復이라고 한다.

第三十八章. 時氣食復候

【原文】

夫病新瘥者는 脾胃尙虛하야 穀氣未復하니 若即食肥肉 魚鱸 餅餌棗栗之屬則未能消化하야 停積在於腸胃하야 便脹滿結實하고 因更發熱하야 復爲病者하니 名曰食復이라

【國譯】

병이 막 나은 사람은 脾胃가 여전히 虛弱하여 소화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만약 기름진 고기, 생선회, 떡과 엿, 대추, 밤 등을 먹으면 消化가 잘 되지 못하여 腸胃에 정체되어 脹滿症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다시 熱까지 발생하여 다시 병이 재발하게 되므로 食復이라고 한다.

第三十九章. 時氣病瘥後交接勞復候

【原文】

夫病新瘥者는 陰陽二氣未和어는 早合房室則令人陰腫入腹하야 腹內疝痛하니 名爲交接勞復이라

## 【國譯】

病이 이제 막 나온 사람은 陰陽二氣가 아직 調和를 이루지 못한 상태인데, 이 때에 房事를 과도히 하면 陰囊이 부어 腹痛이 올 수 있으므로 交接勞復이라고 한다.

## 第四十章. 時氣病後陰陽易候

## 【原文】

陰陽易病者<sup>는</sup> 是男子婦人時氣病新瘥未平復<sup>이어늘</sup> 而與之交接得病者<sup>니</sup> 名陰陽易也<sup>라</sup> 其男子病新瘥未平復<sup>이어늘</sup> 而婦人與之交接得病者<sup>를</sup> 名曰陽易也 其婦人得病新瘥未平復<sup>이어늘</sup> 而男子與之交接得病者<sup>를</sup> 名曰陰易也 若二男二女<sup>면</sup> 并不相易也 所以呼爲易者<sup>는</sup> 陰陽相感動<sup>하야</sup> 其毒度著於人<sup>이라</sup> 如換易也<sup>라</sup> 其病之狀은 身體熱沖胸<sup>1)</sup> 頭重不能舉 眼中生眵 四肢拘急 小腹疝痛 手足舉<sup>하니</sup> 皆即死也 其亦有不即死者<sup>는</sup> 病苦小腹裏急 熱氣沖胸 頭重不欲舉 百節解離 經脈緩弱 氣血虛 骨髓竭 使<sup>2)</sup> 恍恍吸吸 氣力轉少 着床不能搖動 起居仰人<sup>이라</sup> 或引歲月方死<sup>라</sup>

## 【校勘】

- 1) 身體熱沖胸: 『外臺』卷二「傷寒陰陽易方」에는 '身體重 小腹裏急 或引陰腫拘攣 熱上沖胸'으로 되어 있다.
- 2) 使: 『外臺』卷二「傷寒陰陽易方」에는 '便'으로 되어 있다.

## 【國譯】

陰陽易病은 男子와 婦人이 時氣病에 걸렸다가 차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交接해 생긴 병이므로 陰陽易이라고 한다. 男子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婦人과 交接하여 생긴 병을 陽易이라고 하고, 婦人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男子와 交接하여 생긴 병을 陰易이라고 한다. 만약 二男 二女라면 서로 병이

轉易되지 않는다. 易病이라고 부르는 것은 陰陽이 서로 感動하여 그 毒氣가 상대방에게 전이되기 되는 것이 물건을 交換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 病의 症狀은 身體의 熱이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고, 머리가 무거워 들지 못하며, 눈에 異物質이 생기고, 四肢가 뒤틀리며, 小腹이 쥐어짜듯이 아프고, 手足을 흔들어 대는데, 이렇게 되면 다 卽死하고, 그 가운데 卽死하지 않는 경우는 小腹이 땡기고, 熱氣가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며, 머리가 무거워 들지 못하고, 모든 관절이 늘어지며, 經脈이 虛弱해지고, 氣血이 虛해 지며, 骨髓가 다 없어지고, 精神이 恍惚하며, 氣力이 점점 쇠해지고, 자리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며, 멀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증세가 생기는데 歲月을 좀 끌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 第四十一章. 時氣病後虛羸候

## 【原文】

夫人榮衛先虛<sup>한대</sup> 復爲邪熱所中<sup>커나</sup> 發汗吐下之後에 經絡損傷<sup>하면</sup> 陰陽竭絕<sup>하야</sup> 虛邪始散<sup>하니</sup> 眞氣尙少<sup>하며</sup> 五臟猶虛<sup>하며</sup> 穀神未復<sup>하야</sup> 無津液以榮養<sup>이라</sup> 故<sup>로</sup> 虛羸而生衆病焉<sup>이라</sup>

## 【國譯】

榮衛가 먼저 虛해진 상태에서 邪熱에 적중되었거나 發汗, 催吐, 瀉下後에 經絡이 損傷되면 陰陽이 竭絶되어 虛邪가 퍼지게 된다. 이 때에는 眞氣가 衰小하고 五臟도 虛하며 脾胃도 아직 회복되지 않아 津液이 전신을 營養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虛弱해져 여러 병이 생기는 것이다.

## 第四十二章. 時氣陰莖腫候

## 【原文】

此<sup>는</sup> 由腎臟虛所致<sup>라</sup> 腎氣通於陰<sup>하니</sup> 今腎爲熱邪所傷<sup>하야</sup> 毒氣下流<sup>라</sup> 故<sup>로</sup> 令陰腫<sup>이라</sup>

【國譯】

이는 腎臟이 虛해서 생긴 것이다. 腎氣는 陰部와 통하는데, 腎이 熱邪에 손상을 받아 毒氣가 下流하기 때문에 陰囊이 붓게 된다.

第四十三章. 時氣令不相染易候

【原文】

夫時氣病者는 此皆因歲時不和하여 溫涼失節하여 人感乖戾之氣而生病者니 多相染易 故로 預服藥及爲方法以防之라

【國譯】

時氣病은 대부분 그 해의 기후가 적절치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乖戾之氣에 감수되어 생기는 것인데,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미리 服藥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예방에 힘쓰는 것이 좋다.

春分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立春'의 誤植으로 보이고, '二日'이 『千金方』卷九第一과 『外臺』卷三에는 '二日在膚'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타당하며, '三日'이 『千金方』卷九第一에는 '三日在肌'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옳고, '五日'이 『千金方』卷九第一과 『外臺』卷三에는 '五日在胸'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옳으며, '鷄子湯'이 『外臺』卷三에는 '利湯'으로 되어 있는데 鷄子는 下利作用이 없으므로 外臺의 기재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第二十二章의 '燥'가 『外臺』卷三「天行發斑方」에는 '燥'로 되어 있는데 文脈上 이것이 맞다. 本候에서 제시한 '凡發斑不可用發表藥'은 發斑治療의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斑疹은 대개 血分熱盛에 기인하므로 이를 辛溫한 약으로 발산시키면 陰血이 枯燥되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辛涼한 약으로 解毒시켜야 한다.

IV. 結 論

1. 時氣病은 그 季節에 걸리지 않은 氣候變化에 의하여 發病되는 流行病을 말하는데, 그 原因이 대부분 寒邪에 感觸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時行傷寒이라고도 부르며 겨울에 발작되는 傷寒病과는 輕重의 차이가 있다. 또한 時氣病은 溫病, 濕病과 類似하나 時氣病의 原因은 寒邪에 感觸되어 생기는 것으로 그 치료에 차이가 있다. 本篇에 기술되어 있는 病因, 病機, 證候變化와 豫後는 傷寒病篇의 내용과 대략 같은데, 다만 傷寒病篇에 비해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다. 時氣病은 溫病과 더불어 現在 유행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과 類似性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치료방법 개발에 一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時氣病諸候 第一章의 '春分'이 『傷寒論·傷寒例』에는 '立春'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문장에

參 考 文 獻

1.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 巢元方: 諸病源候論,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70年.
3.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4.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5. 張仲景原著, 成無已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6. 王燾: 外臺秘要, 臺北 國立中國醫藥研究所 民國53年.
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8. 王叔和原著, 福州市人民醫院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